지역 소식통

부안군, 평생학습도시협 좋은 정책상 수상

부안군은 26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한 '2022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 좋은 정책 TOP15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공모를 시작한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는 교육부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189곳, 교육지원청 74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정책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진행한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모든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특별하다'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심사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평생교육사 △파트너십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부안군은 '좋은 정책상'과 '평생교육사 신인상' 2개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좋은 정책상'으로 선정된 72개 자치단체 중 상위 15개 도시로 선정되어 협의회장&EBS사장상(공동명의)을 수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초등교 입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책가방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책가방 구입비 지원사업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월 중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책가방 구입비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창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등 기초코딩역량 강화를 위한 코딩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악취관리 강화 집중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단속 · 자동분사시설 설치 지원 등 최선

부안군은 군민의 쾌적·상쾌한 생활환경을 위해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한 질주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2년에 사업장·축산시설 255개소를 점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부적정 관리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14개소 위반 사업장를 적발하여 악취 제로(zero)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1건, 개선·조치명령 4건, 개선권고 1건, 과태료 8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부터 축산시설 및 악취 발생 시설에 자동분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안 축사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7개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악취저감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자동분사 설치 시설 47개소에 대하여 미생물제 약품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2022

년에는 33개 농가에 약품비를 지원하여 축산 악취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및 퇴비 살포 시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팸플릿 2500부를 제작하여 각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배포하였고 읍·면 기술센터와 이장단회의 등에 교육 등을 통하여 연중 사전교육 및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부안군은 축산시설 및 배출시설 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개선을 위하여 현장 기술지원 및 악취저감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관리 실태조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악취저감 방안을 사업장과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폐수,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악취 발생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근절될 때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현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취 제로화(zero)를 위해 전력 질주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종합테마파크 조성 T/F 팀 신설 본격 가동

행정절차 · 각종 인허가 · 관련 법령 검토 등 전반적 사항 진행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T/F팀을 조직하여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T/F팀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하며, 전담팀 구성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국내 굴지의 대형 리조트인 용평리조트와 35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고창군 심원면에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레저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건립기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광인프라 구축, 주변 지역 상권 형성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고창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군은 용평리조트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T/F팀 구성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모두 보유한 고창군은 이번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정읍시는 지난 25일 '정읍시 민선 8기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해 일자리 공약사항을 조기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정읍시 일자리 특성과 인구정책 성과 분석을 보고하고 저출산 대응,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총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 관련 부서장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과 발굴된 사업들은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일자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일자리 종합계획을 참고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활력 넘치는 기회 도시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정읍시 취업중개센터 운영, 슈메이커 공예창작 지원사업, 청년 창업지원,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사회적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정읍시 일자리정책을 총괄 추진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2일 부임한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사업별 진행 상황 꼼꼼하게 챙길 것"

김형우 정읍 부시장, 현장 방문 통한 소통행정 나서

지난 2일 부임한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김 부시장은 취임 직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6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방문 첫날인 26일은 내장산 문화광장 NFS 연수원 건립사업, 정읍 드림랜드 조성사업,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등 5개 부서, 7개 사업장을 방문했다.

김 부시장은 사업부서장과 사업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애로사항 등 상세한 보고와 의견을 청취했다.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용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김형우 부시장은 "진행 중인 사업 모두가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현지 출장을 통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6.25 참전유공자 유족 화랑무공훈장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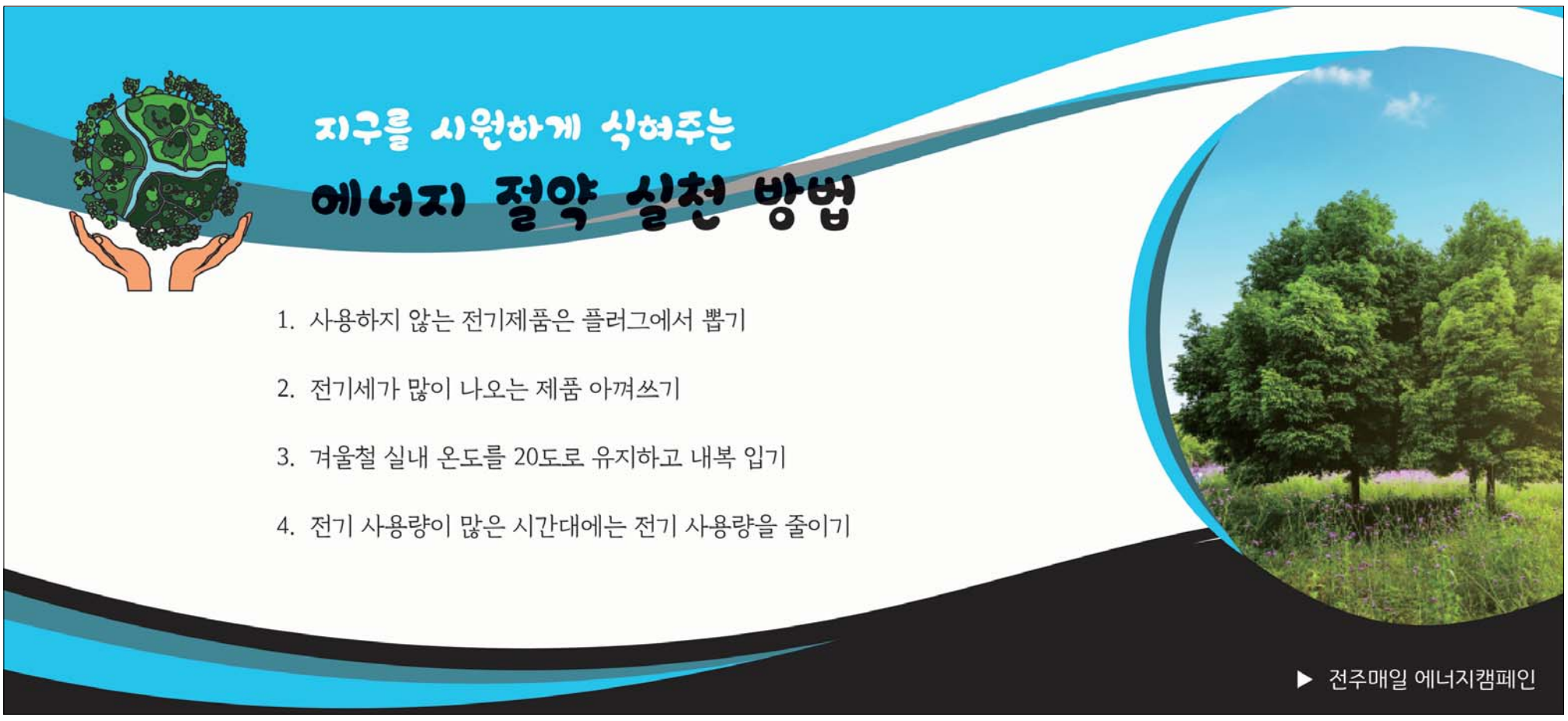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으로 받지 못한 훈장이 70년 만에 돌아왔다.

정읍시는 26일 6·25 전쟁 참전유공자인 故 정영환 유공자와 故 이귀복 유공자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으로 나라를 위한 전투·전시에 참전했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헌신·분투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전쟁영웅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故 정영환 유공자는 평남 비호산 전투에서, 故 이귀복 유공자는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공적을 인정받아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번 훈장 수여는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유공자를 발굴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유족들에게 늦게나마 무공훈장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보훈 가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